

대전시 성평등 수준, 어디까지 왔나

대전 성평등지수 7년 연속 전국 '상위'

여성가족부는 국가와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파악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분야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국가와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측정·발표한다. 3개 영역, 8개 분야로 나누어 측정되는 종합지표로 2017년 기준 지역성평등지수는 23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전 성평등 한 상태를 100점으로 산정한다. 지역성평등지수 값의 순위에 따라 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 지역으로 구분하며, 대전은 2011년 이래 줄곧 '상위지역'으로 구분되어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대전의 분야별 지역성평등지수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8개 분야 중 7개 분야가 16개 시·도 중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보건'(98.9점), '문화정보'(94.1점)는 가장 높은 점수로 1위에 올랐으나, '안전' 분야(67.3점)는 타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며, 시·도별로도 14위에 머물렀다.

대전시 지역성평등지수 분야별 현황(2017년 기준)

단위 : 점(완전 성평등=100.0)

성평등 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 성별 임금격차 성비
- 상용근로자 성비

의사결정

- 광역 및 기초의원 성비
-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 관리자 성비
- 위원회 위원 성비

교육·직업훈련

- 평균 교육연수 성비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 기초생활보장자 비율 성비
-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보건

-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의 성별 격차
-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 스트레스 인지를 성비

안전

-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인식 성비
-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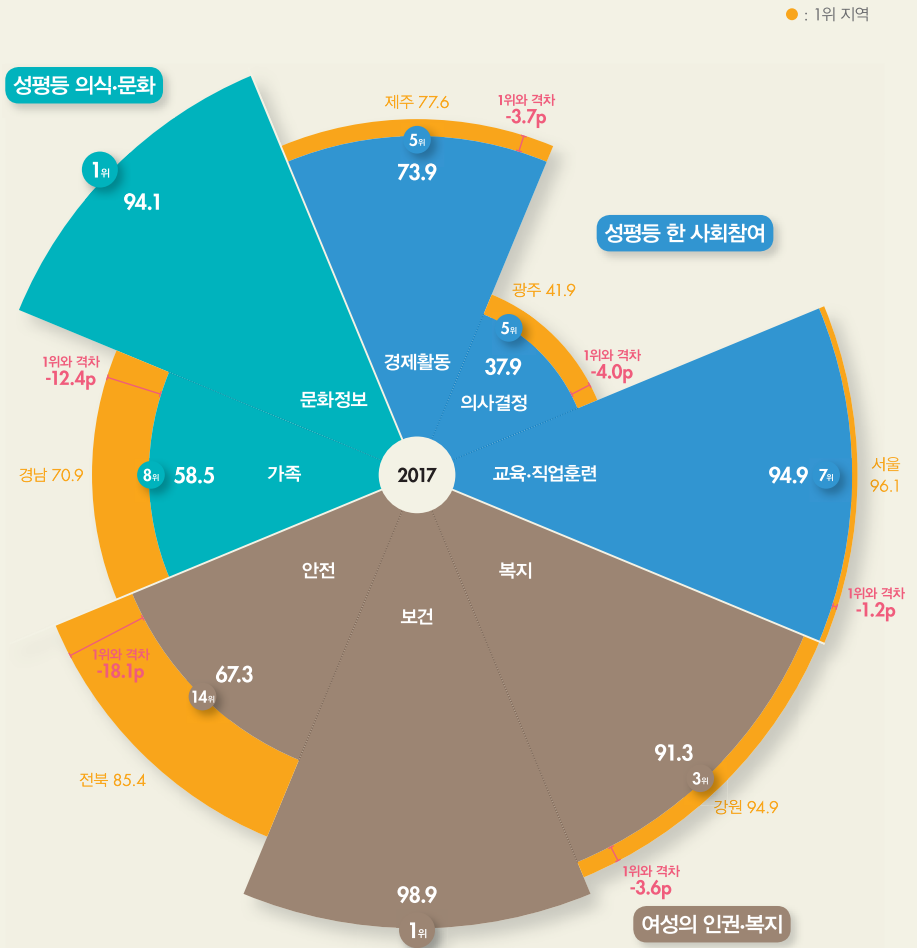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 가사노동시간 성비
- 셋째 이상 출생성비
-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 육아휴직 성비

문화정보

- 여가시간 성비
- 여가만족도 성비
- 인터넷 이용률 성비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발행인 박재욱
편집인 주혜잔
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203 대전
발행일 2019. 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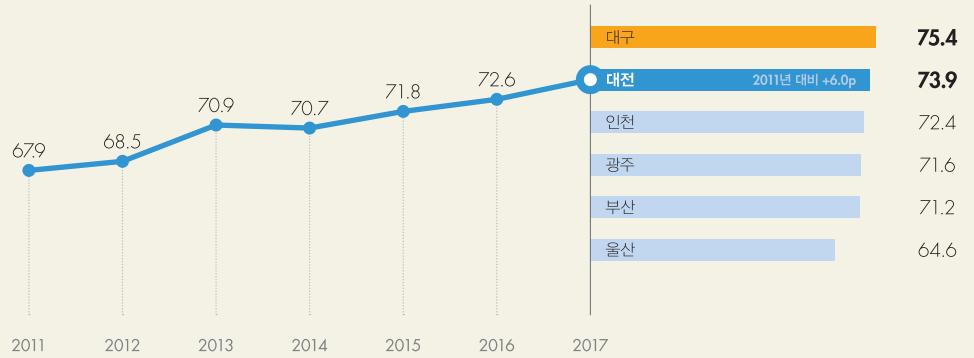
1)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류방식은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상대적 수준을 기반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각 등급 내 시도 순서는 가나다 순서임(2017년 기준 상위지역: 광주, 대구, 대전, 제주 / 중상위 지역: 부산, 서울, 인천, 전북 / 중하위 지역: 강원, 경남, 울산, 충북 / 하위 지역: 경기, 경북, 전남, 충남)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8개 분야) ① 경제활동, ② 의사결정, ③ 교육· 직업훈련, ④ 복지, ⑤ 보건, ⑥ 안전, ⑦ 가족, ⑧ 문화· 정보
*지표는 성비로 파악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 12. 28.), www.mogef.go.kr

보건, 문화·정보 분야 높고, 안전 분야 낮아

2011년부터 8개 분야별 대전시의 지역성평등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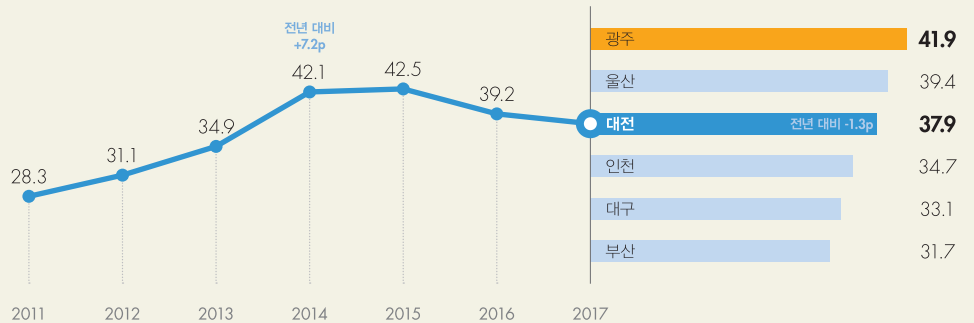
대전 '경제활동' 분야 연도별 추이

대전의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수준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70.7점)에 다소 주춤했으나, 2011년 67.9점에서 꾸준히 개선되어 2017년 73.9점(2011년 대비 +6.0점)으로 상승했다. 대전은 2017년 기준 6대 광역시 비교에서 대구(75.4점) 다음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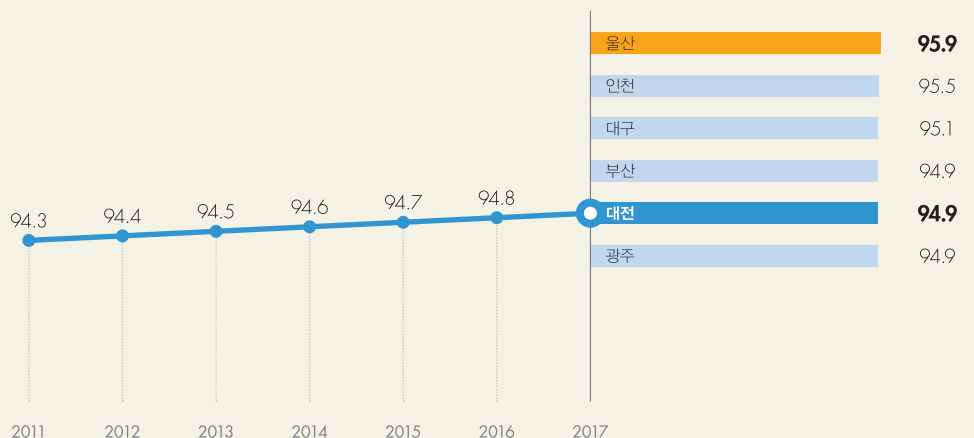
대전 '의사결정' 분야 연도별 추이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5년(42.5점)까지 계속 개선되었으며, 특히 2014년(42.1점)은 비교적 큰 폭의 수준 상승(2013년 대비 +7.2점)이 있었다. 그러나 2016년(39.2점, 전년 대비 -3.3점)부터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37.9점으로 광역시 중 3위를 차지했다.



대전 '교육·직업훈련' 분야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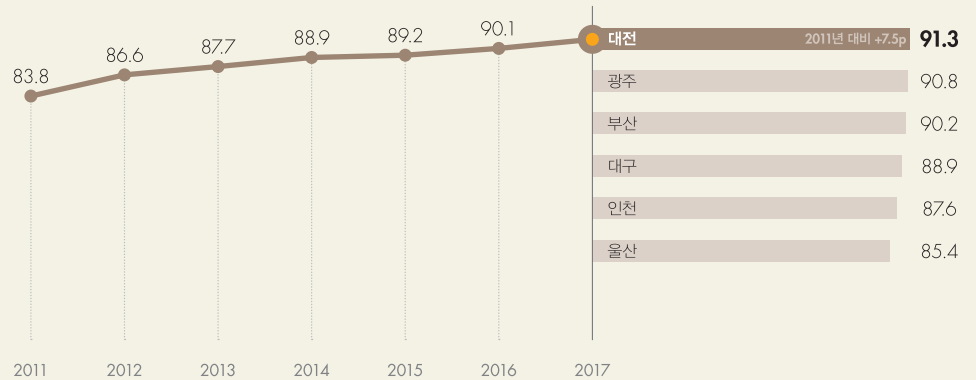
대전은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 2011년(94.3점) 이후 해마다 0.1점씩 상승해 2017년 94.9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6대 광역시 중 부산, 광주(94.9점)와 동일한 점수로 4위에 자리했다.



*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 2011년~2016년 분야별 대전시의 점수는 『2017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를 참고했으며, 2017년 점수는 여성가족부 보도 자료(2018. 12. 28.)를 참고했음
 *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 12. 28.), www.mogef.go.kr 여성가족부, 『2017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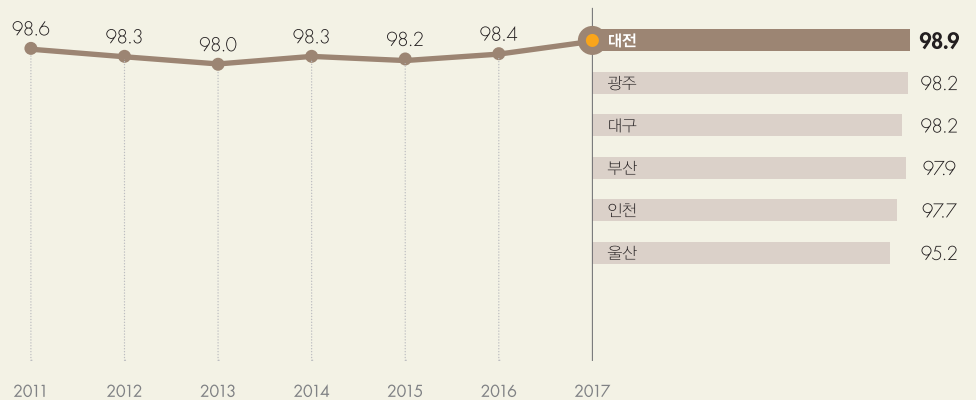
대전 '복지' 분야 연도별 추이

'복지'에서 대전시의 성평등 수준은 2011년(83.8점) 이래 높은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7년 91.3점으로 16개 시·도 중 3위,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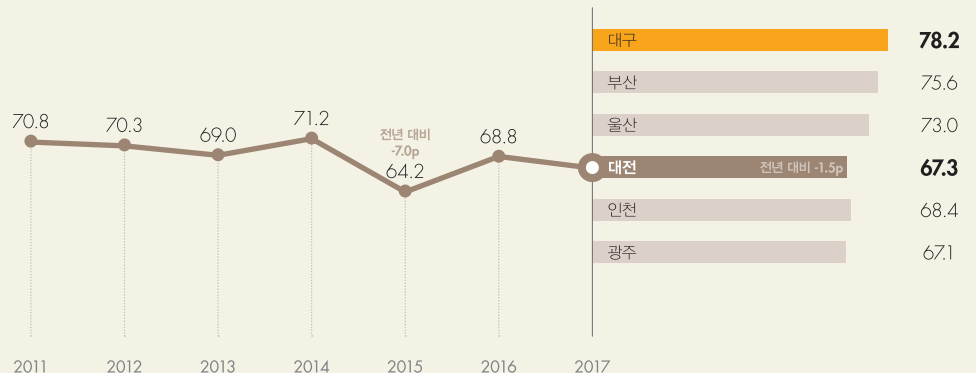
대전 '보건' 분야 연도별 추이

대전은 '보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며, 2011년(98.6점) 전국 1위에 올라선 이후 꾸준히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2017년 98.9점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 다른 분야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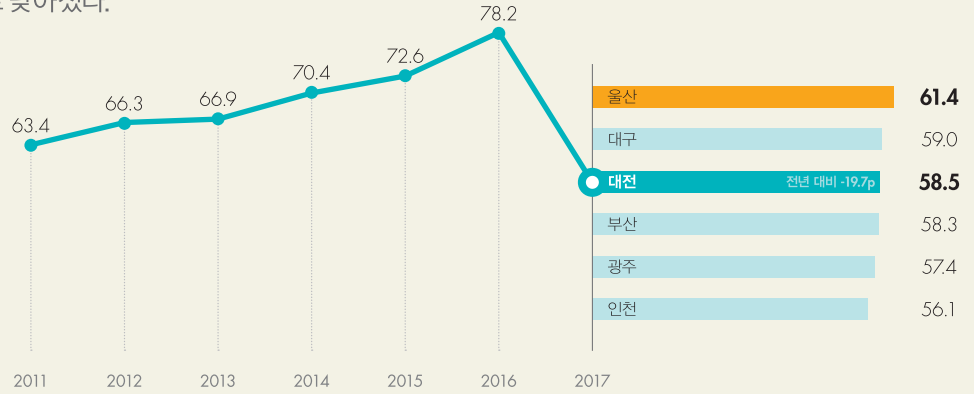
대전 '안전' 분야 연도별 추이

'안전' 분야는 2014년(71.2점) 중상위권으로 처음 진입했지만 2015년(64.2점) 전년 대비 크게 하락(-7.0점) 하면서 다시 중하위권으로 내려갔다. 2016년 68.8점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2017년 67.3점(전년 대비 -1.5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16개 시·도 중 14위, 6개 광역시와 비교해 5위에 그쳤다. 이는 해당 지표에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대구(78.2점, 전국 3위)보다 10.9점이나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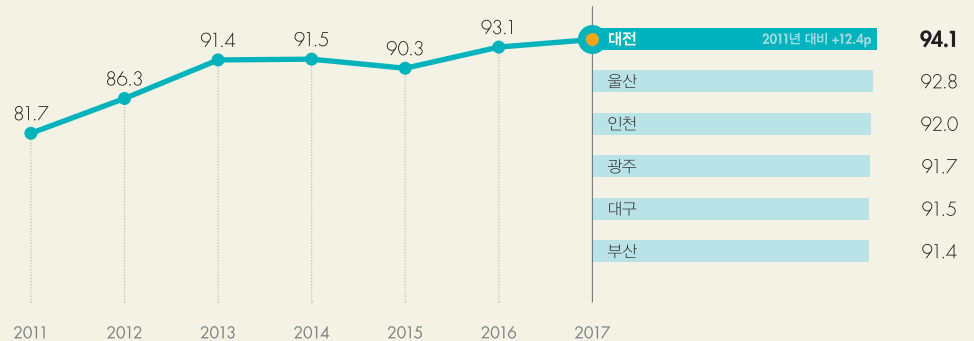
대전 '가족' 분야 연도별 추이

대전의 '가족' 분야 성평등 수준을 연도별 추이로 보면, 2011년 63.4점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6년 78.2점까지 올라갔으나, 2017년 58.5점으로 전년 대비 크게 하락(-19.7점)했다. 시·도별로 비교했을 때, 2014년까지 상위권을 유지했으나 이후 하락하여 2017년에는 중상위권(16개 시·도 중 8위, 광역시 중 3위)으로 낮아졌다.



대전시 '문화·정보' 분야 연도별 추이

'문화·정보' 분야는 대전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개선이 있는 분야 중 하나로, 2012년(86.3점) 이래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2017년 94.1점으로 2011년(81.7점)에 비해 12.4점이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분야 1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2019 젠더 콜로키움
여성가족 이슈

2019 제1회 젠더 콜로키움
밋밋한 사고에 주름을 잡다

청년세대 젠더 이슈 픽 - 남성성과 혐오

젠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젠더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제발제

- + 한국 징병제와 국민/남성: 1945-1960
- + 소비자사회와 청년세대의 '여성혐오'

- ▶ 강인화_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 ▶ 최영지_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일시 2019년 2월 19일(화) 10시

장소 대전세종연구원 3층 소회의실